

# 2025년 2분기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www.kcprice.or.kr](http://www.kcprice.or.kr)

---

2025.07.18

# 목차

Table of Contents

## | 2025년 2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 | 2025년 2분기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 2-1) 2025년 2분기 기본 원재료(밀, 대두, 원당) 가격 추이
- 2-2) 쌀 가격 이슈

## | 2025년 편의점 소비자물가 이슈

### | 소비자물가 이슈

-서울시 아메리카노 가격 비교 "아아, 어디서 먹을까?"

## | 2025년 전국 물가감시 네트워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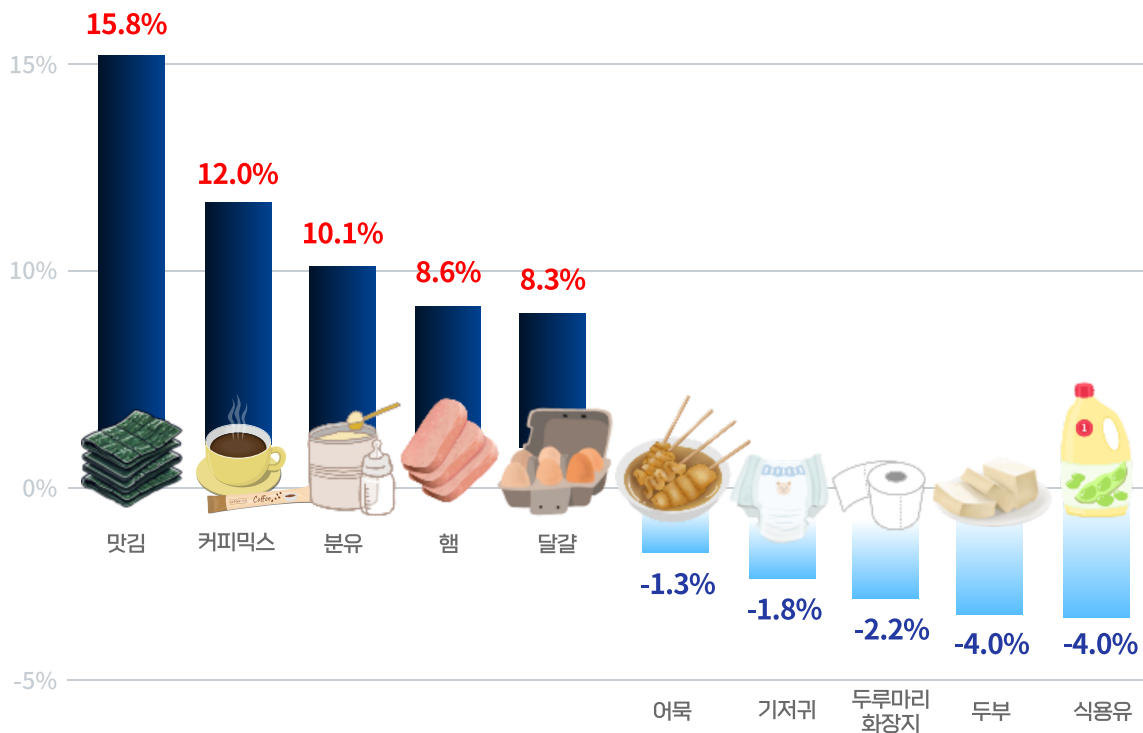
---

## 1. 2025년 2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 1 맛김, 커피믹스,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가장 높아

-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3% 상승, 37개 품목 중 상승 품목 28개, 하락 품목 9개

<그림 1-1. 전년 동기 대비 가격상승률 상위·하위 10개 품목>



본 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sup>1)</sup> 하고 있는 생활필수품 가격 분석 결과 37개 품목<sup>2)</sup> 중 28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상승하였고 9개 품목은 하락하여 평균 3.3%의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이 오른 28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9%로 이중 가격 상승률이 높은 5개 품목은 맛김(15.8%), 커피믹스(12.0%), 분유(10.1%), 햄(8.6%), 달걀(8.3%)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0%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하락률이 높은 5개 품목은 식용유(-4.0%), 두부(-4.0%), 두루마리화장지(-2.2%), 기저귀(-1.8%), 어묵(-1.3%) 순으로 나타났다.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 물가감시센터는 매월 셋째 주 목-금 양일간 서울시 25개 구, 경기도 10개 행정구역의 420개 유통업체에서 생활필수품과 공산품 가격 조사(39개 품목, 82개 제품)로 물가 상승 동향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본 협의회는 조사 품목은 39개 품목이나 등락률의 비교가 가능한 37개 품목에 한해 분석함. 즉 25년 3월 기준 변경된 조사 품목의 경우 25년 2분기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 2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 평균 11.9% 올라

- 맛김, 분유, 커피믹스 전년 대비 가격 10% 이상 상승해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을 살펴보면,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풀무원)'이 18.5%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아이엠마더 3단계(남양유업)'는 13.1%,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동원F&B)' 12.8%,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남양유업)' 12.3%, '맥심 모카골드 믹스(동서식품)' 11.6% 순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맛김, 분유, 커피믹스 등 식생활과 관련된 가공식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의 체감물가 부담이 컸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커피믹스 제품 중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2.3%,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가 11.6% 상승했는데, 두 제품 모두 전년 동기보다 큰 폭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이 최근 6개월 사이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 누적 인상률이 약 20%에 달해 당분간 커피믹스 제품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분유 제품 중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 3단계', '임페리얼드림XO 3단계' 제품 모두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5년 6월 통계청의 분유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분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가격 상승은 할인 행사 종료, 분유 원재료 가격 등 생산 비용 증가 및 분유 시장 축소가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상위 10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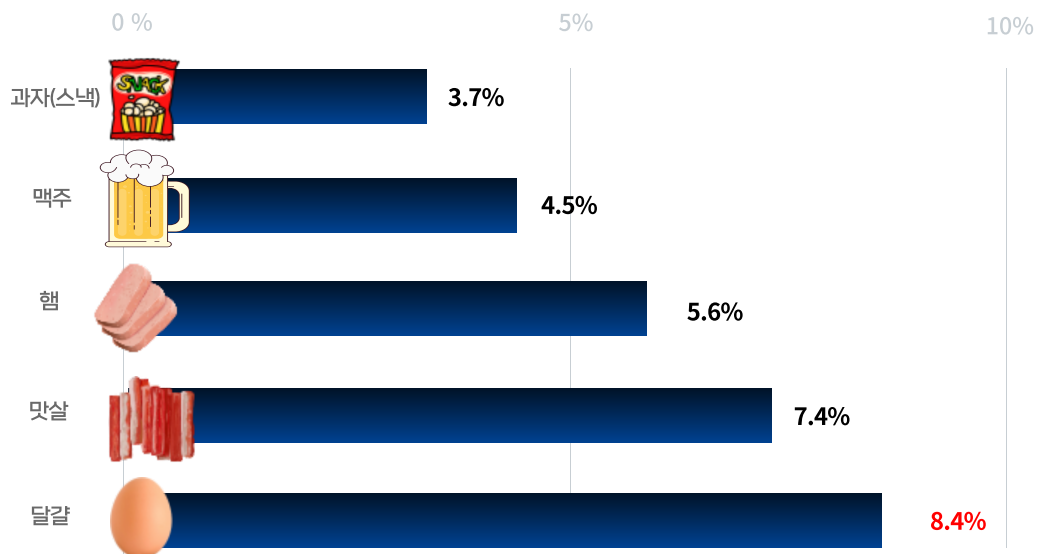
제조회사	제품명	상승률
풀무원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	18.5%
남양유업	아이엠마더 3단계	13.1%
동원F&B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12.8%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2.3%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믹스	11.6%
LG생활건강	엘라스틴 콜라겐 볼륨 탄력케어 샴푸	10.2%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XO 3단계	10.1%
CJ제일제당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10.0%
CJ제일제당	해찬들 사계절 삼장	9.9%
동서식품	포스트 콘푸라이트	9.9%

### 3 25년 1분기 대비 2분기 상승률 1위 달걀(8.4%), 소비자 즐겨 찾는 식재료 인상으로 체감 부담 커져

25년 2분기 품목을 전분기와 비교한 결과 29개 품목이 상승, 평균 상승률은 2.1%였으며, 9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품목 중 다수가 상승세로 전반적인 생활필수품 물가가 오름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달걀(8.4%), 맛살(7.4%), 햄(5.6%), 맥주(4.5%), 스낵과자(3.7%) 순이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5개 품목은 두부(-1.8%), 참치(-1.4%), 쌈장(-0.8%), 껌(-0.4%), 샴푸(-0.2%) 순이었다.

<그림 1-2. 25년 1분기 대비 25년 2분기 상승률 상위 5개 품목>



25년 2분기 달걀 평균 가격은 8,200원으로 25년 1분기 7,568원 대비 8.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달걀 가격 상승은 산란계 수급 상황 및 유통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달걀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만큼, 가격 인상에 따른 체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상승률 2위 품목인 맛살은 전분기 대비 7.4% 상승했다. 사조대림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맛살의 주요 원재료인 연육 가격은 23년 2,359원에서 24년 2,710원으로 14.9% 상승, 25년 1분기 2,269원으로 전년 대비 16.3% 하락했으나,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 대형마트에서 평균 13.5%나 가격 상승해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을 유통채널별로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는 평균 13.5%, 일반슈퍼마켓은 6.8% 상승하여 대형마트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슈퍼마켓의 2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24년 2분기 대비 25년 2분기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 유통채널별 상승률 추이>

품목	3대 대형마트	SSM	일반슈퍼마켓
맛김	30.3%	6.6%	21.6%
커피믹스	12.8%	13.4%	10.2%
분유	13.8%	-	2.3%
햄	11.2%	9.3%	4.2%
달걀	6.6%	4.0%	11.1%
평균	13.5%	8.3%	6.8%

품목별로 살펴보면, 맛김은 대형마트에서 30.3% 상승하여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커피믹스는 SSM 13.4%, 대형마트 12.8%, 일반슈퍼마켓 10.2%로 모든 유통채널에서 10% 이상 상승하였다. 분유는 대형마트에서 13.8% 상승한 반면 일반슈퍼마켓에서는 2.3%로 소폭 상승해 유통채널 간 가격 차이를 보였다. 달걀은 일반슈퍼마켓에서 11.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통채널에 따라 체감물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식품 기업들의 책임 있는 가격 결정과 소비자들의 가격 정보 적극적 활용 필요

본 협회회의 25년 2분기 생활필수품 가격 분석 결과, 전체 37개 조사 품목 중 28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맛김, 커피믹스, 분유, 햄, 달걀 등 주요 5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0%로 전체 평균(3.3%)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품목은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로, 체감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24년 2분기 대비 25년 2분기 가공식품 상승률은 4.3%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24년 하반기부터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잇따라 올려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유통채널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품목은 유통채널 간 10%p 이상의 상승률 차이가 발생했다. 유통업체별 마진율이나 할인 전략 등 마케팅 전략에 따라 이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 및 정보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유통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라면, 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인 반짝 세일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에 맞춘 적극적 가격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업체들의 책임 있는 가격 정책과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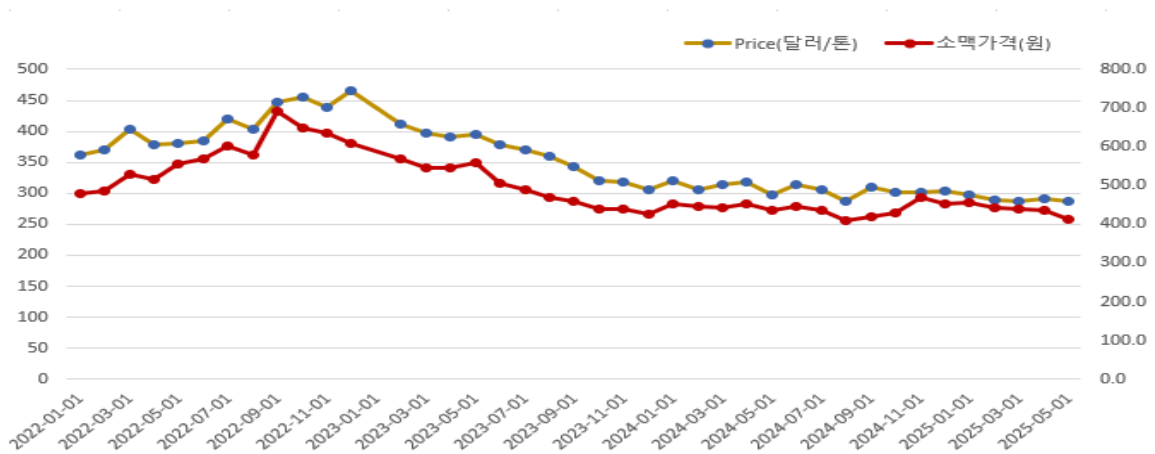
## 2. 2025년 2분기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 2-1 2025년 2분기 기본 원재료(밀, 대두, 원당) 가격 추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8.0포인트로 전월 대비 약 0.55% 상승했고, 곡물가격지수는 107.4포인트로 전월 대비 약 1.47% 하락했다.

**밀**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25년 6월 기준 세계 밀 생산량과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에 의하면 세계 밀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9%, 공급량은 0.35%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0.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말재고량은 0.46%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밀의 수급 상황이 양호해지며 밀 가격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밀의 국내수입단가 국내수입단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그림 2-1>과 같이 밀의 국내수입단가는 하락세이며 25년 5월 현재 286.86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상반기 평균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2-1. 2022년~2025년 밀 국내수입단가와 소맥 가격 추이>



뿐만 아니라 본 협의회가 조사하고 있는 밀가루 원재료인 소맥의 가격 역시 밀의 국내수입단가와 비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22년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2년 하반기부터 2천 원 대로 인상된 1kg 기준 밀가루 소비자가격은 아직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

**대두**의 세계 생산량 및 공급량, 소비량에 대해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대두 가격도 밀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수입단가도 25년 5월 현재 전월 대비 약 7.3% 하락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두를 주 원재료로 하고 있는 두유 등 가공식품의 소비자가격의 인하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두와 관련이 있는 대두유의 6월 국제 가격은 브라질과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 정책에 의한 수요 강제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유의 상승으로 대두유를 주 원재료로 하는 소비 품목 외에 대체 품목들의 가격도 인상될 수 있으므로 관련 품목들의 가격 변동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국내수입단가는 밀, 옥수수, 대두를 기준으로 해외 거래 가격뿐 아니라 운송비, 보험료, 환율 등을 고려한 실제 수입 비용임. 본 데이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되고 있음.

원당은 20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23년 큰 폭으로 오른 후 하락세이기는 하나 <그림 2-2>에서와 같이 하락폭이 크지 않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 인도, 태국의 작황 개선의 전망에 따라 세계 설탕 가격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기후와 인도 등의 수출 정책에 따른 변수가 아직도 커 국제 원당 가격의 안정화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당이 주원료로 사용되는 설탕 관련 품목들의 가격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2. 2022년~2025년 원당 국제 가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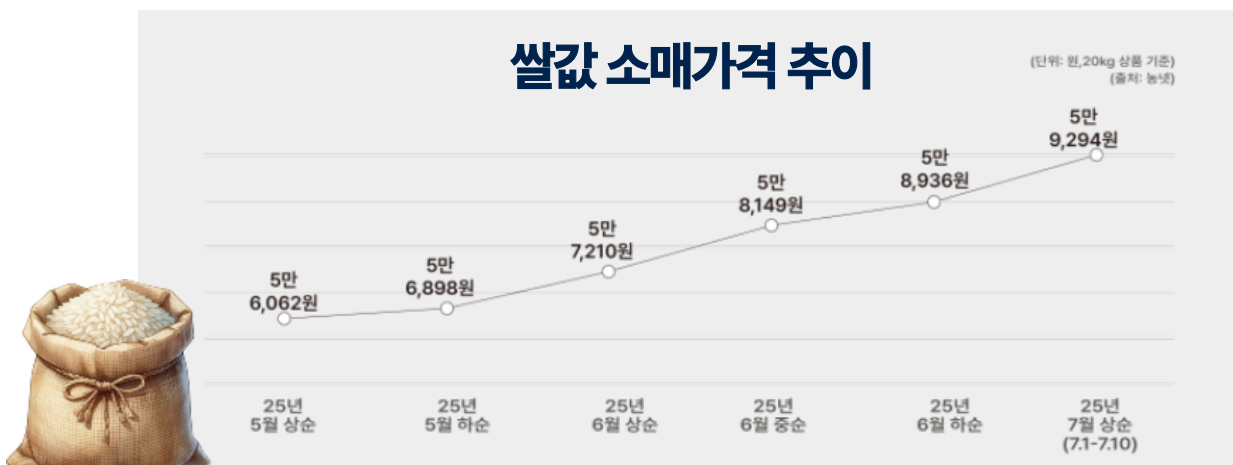


출처 : aT식품산업통계정보, 거래소ICE(NYBOT)

## 2-2 쌀 가격 이슈

### 1 쌀 소비자 가격, 상승추세

올해 들어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쌀값 가격 안정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3월 상순에 평균 54,894원이던 쌀 소매가격(20kg, 상품 기준)은 5월 상순에는 56,062원으로, 2개월 전보다 2.1% 오르더니, 6월 상순에는 57,210원, 7월 상순(7월 1~10일)에는 59,294원까지 올랐다. 7월 상순 가격(59,294원)은 전년 동 기간(53,572원)보다 10.7%, 평년(52,003원)보다 14.0% 높았다.



쌀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년도에 정부가 쌀 과잉 생산량의 4배를 초과한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2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현재 민간과 정부 재고량은 충분하지만 수확기에 벼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민간 산지유통업체와 일부 농협 RPC<sup>4)</sup>가 원료곡(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과도한 쌀값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들은 쌀 시장 방출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공매를 통해 가격이 떨어지면, 수확기 쌀 가격에 반드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압력으로 인해 양곡 방출을 늦춘다면, 높아진 쌀 가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오게 될 것이다.

## 3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이슈

쌀값 상승과 함께 최근 떠오르는 이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올해 9월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초과 생산 쌀 매입 의무화'다.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데,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구조적 과잉 생산, 국제 규범 위반 등이 그 이유였다. 특히 쌀 과잉 생산의 경우, 정부가 초과 물량을 매수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정책 비용이 과도하다는 것이 컸다. 한편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은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농업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쌀 농가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쌀 목표가격제를 설정한 이후, 여러 가지 제도들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 바 있다. 20년에는 15년간 유지된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 공익직불제를 도입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말도 많았다. 재배면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농민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실제 재배면적 축소로도 이어지지 못했고, 수급 불안정에 따라 생산과 잉을 불러일으켜 해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2조~3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큰 정책적 비용 낭비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에게 그리고 쌀 소비자가격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 서민 밥상과 직결된 민생 문제로 접근해야

쌀은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자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쌀 가격의 상승은 단순한 곡물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과 직결된 민생 문제이다. 특히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정부는 비축미 방출 등 적극적인 쌀 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의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안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공급 분야에서 원활한 유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소비자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판단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다.

4) 미국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3. 2025년 편의점 소비자물가 이슈

#### ● 주요 편의점 3사 얼음컵 비교 결과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며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 중 하나로 편의점 얼음컵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 음료 및 얼음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주요 편의점 3사(CU, GS25, 7-Eleven)의 180g, 190g 얼음컵을 대상으로 제품을 비교해 보았다<sup>5)</sup>.

<표 3-1. 주요 편의점 3사 얼음컵 비교 제품 >

업체명	CU	GS25	7-Eleven
사진			
제품명	del 컵얼음 180g	유어스)아이스컵미디엄(M) 190g	에코얼음컵레쿨러 180g
분류	플라스틱 얼음컵	플라스틱 얼음컵	종이 얼음컵
가격	700원	700원	700원

출처: 각 사 공식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자료

#### ① 용량 기준 충족 여부

각 편의점별 얼음컵 용량을 확인해본 결과, GS25의 얼음컵(190g)은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에 따른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나, 표시 용량에 미달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다. CU와 7-Eleven은 용량 기준을 충족했다.

#### ② 얼음 유지력 비교

콜라 캔(냉장)을 부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7-Eleven과 CU의 얼음컵이 상대적으로 얼음이 덜 녹는 상태를 보였으며, GS25의 얼음컵은 얼음이 가장 많이 녹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우치 커피 및 음료(실온)를 부었을 때도 7-Eleven과 CU의 얼음컵의 얼음 유지력이 우수했으며, GS25 얼음컵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얼음이 녹는 경향을 보여, 얼음 유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얼음컵은 여름철 편의점에서 소비가 많은 품목 중 하나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용량 표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각 편의점은 소비자 신뢰를 위해 자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에 강한 압력이나 물리적 변형을 가할 경우,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 얼음컵 사용 시 소비자들은 과도한 충격을 가하거나 찌그러트림(과한 손상)을 자제하여 얼음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본 조사는 일부 샘플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제품의 특성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4. 소비자물가 이슈: 서울시 아메리카노 가격 비교 "아아, 어디서 먹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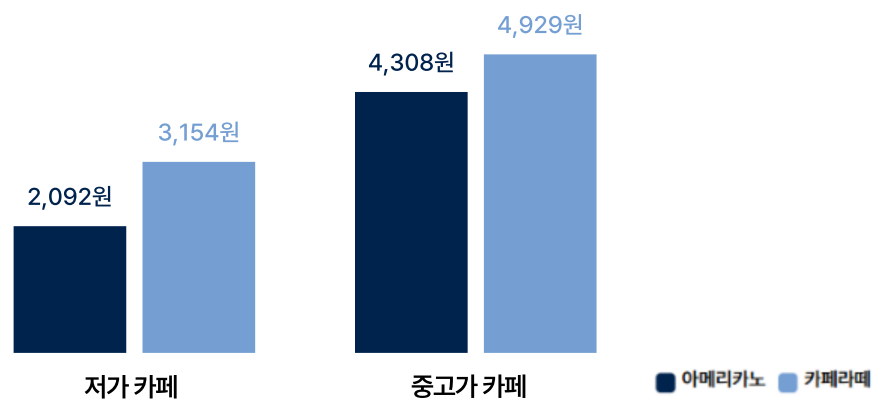
커피는 직장인들에게 '생명수'라 불릴 만큼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에게도 커피는 거의 습관처럼 소비되는 음료이기 때문에 커피 가격 변화는 체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이기도 하다. 24년 4월을 기점으로 커피 원두 수입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커피믹스부터 카페 커피까지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커피 한두 잔 째는 부담 없이 마시던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가격 인상으로 부담은 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내 주변의 커피 가격은 얼마일까? 현재 공개되는 대부분의 커피 가격 정보는 유명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카페의 가격 수준은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가격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커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지난 5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직장인 밀집도가 높은 상위 10개 구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주요 상권 내 개인 카페와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총 1,379개소를 대상으로 아메리카노 및 카페라떼 가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 커피 가격의 전반적인 동향을 보다 실제 소비환경에 맞춰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울시 아메리카노 평균 3,364원, 카페라떼 평균 4,173원

<그림 4-1. 서울시 카페 커피 가격>



조사결과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은 3,364원, 카페라떼는 평균 4,173원이었다. 동일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음료의 평균 가격 차이는 약 809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대별로 분류해 보면, 저가 카페<sup>6)</sup>의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은 2,092원, 카페라떼 3,154원이었으며, 동일 매장 기준 두 음료 간 평균 가격 차이는 약 1,063원이었다. 반면, 중·고가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이 4,308원, 카페라떼 4,929원으로 가격 차이가 약 62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간 가격 차이가 중·고가 카페보다 저가 카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6) 저가 카페는 아메리카노 가격이 3천 원 미만인 카페로 정의하였고, 중·고가 카페는 아메리카노 가격이 3천 원 이상인 카페로 정의하였음.

## 2) 개인 카페의 아메리카노 가격, 프랜차이즈보다 평균 24.8% 비싸

- 중·고가 카페는 개인 카페보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가격이 더 높아

프랜차이즈 카페와 개인 카페는 소비자들의 이용 목적이나 소비 행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가 간편하게 커피를 구매하는 '단순 소비'의 성격이 강하다면, 개인 카페는 공간의 분위기, 개성 있는 메뉴, 서비스 등 '경험'을 함께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 카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많은 편이어서 두 유형의 카페 커피 음료 가격을 비교해 보았다.

<표 4-1. 서울시 개인 카페 및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가격>

	개인카페(n=499)		프랜차이즈 카페(n=825)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평균	3,839	4,533	3,077	3,955
최고가	6,500	7,500	4,700	5,200
최저가	1,300	2,000	1,600	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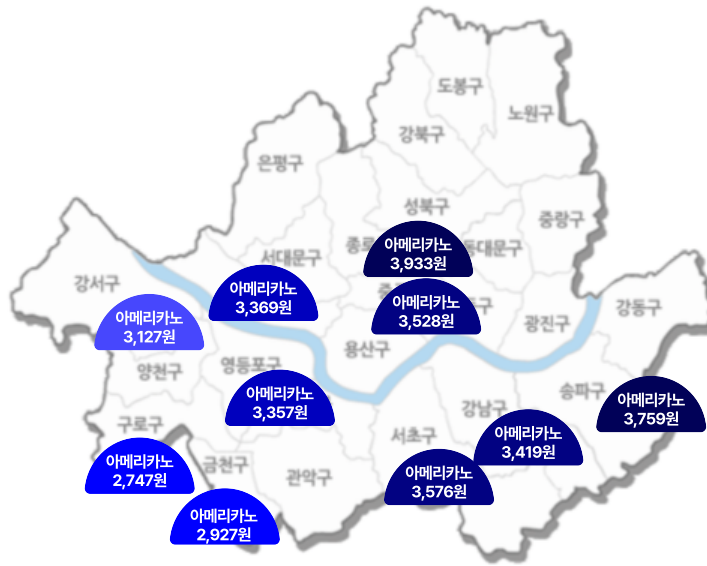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아메리카노의 평균 가격은 프랜차이즈에선 3,077원, 개인 카페는 3,839원으로 나타나 프랜차이즈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카페라떼 가격 역시 프랜차이즈는 평균 3,955원, 개인 카페는 4,533원으로, 두 유형 간 가격 차이가 있었다. 아메리카노의 최저, 최고가를 보면, 개인 카페가 최저 1,300원에서 최고 6,500원까지, 프랜차이즈는 1,600원에서 4,700원으로 나타나 개인 카페가 더 넓은 가격 분포를 형성하고 있었다.

저가 카페와 중·고가 카페로 나누어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의 커피 가격을 비교해 보면 중·고가 카페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이 4,374원, 개인 카페의 4,249원보다 더 높았다. 카페라떼 가격 역시 개인카페 4,880원, 프랜차이즈 4,982원으로 프랜차이즈의 평균 가격이 더 높았다. 반면, 저가 카페에서는 개인 카페의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이 2,246원, 프랜차이즈는 2,058원으로 나타나 개인 카페의 가격이 소폭 더 높았다. 하지만 카페라떼는 개인 카페의 평균 가격이 3,185원, 프랜차이즈 3,147원으로 두 유형 간 가격 차이는 거의 없었다.

## 3) 서울시 자치구별 아메리카노 가격, 종로구 평균 3,933원으로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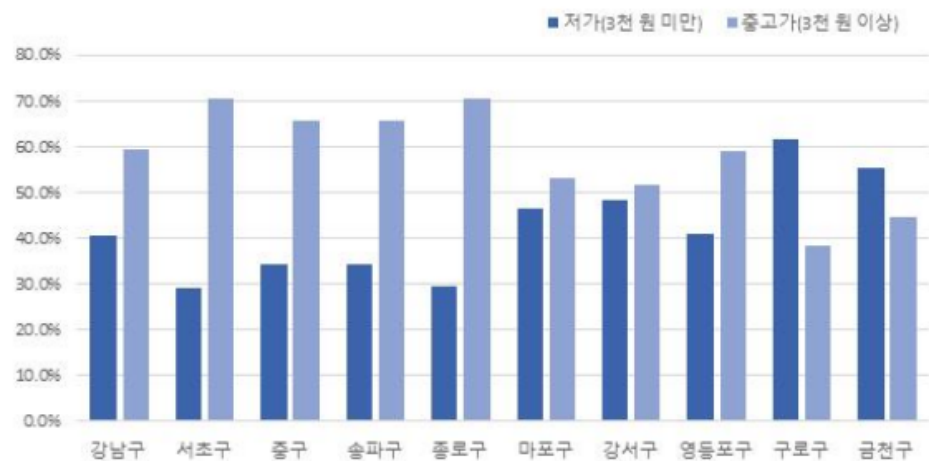
서울시 직장인 밀집 지역의 아메리카노 가격을 행정구별로 보면, 종로구가 평균 3,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송파구 3,759원, 서초구 3,576원, 중구 3,528원 순으로 전반적으로 동남권과 도심권의 커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구로구의 평균 가격은 2,747원, 금천구 2,927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었다. 카페라떼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구로구가 평균 3,619원으로 가장 낮았고 종로구가 4,702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 간 평균 가격 차이로는 아메리카노가 최대 약 1,200원, 카페라떼 최대 약 1,100원으로 행정구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서울시 자치구별 아메리카노 가격>



이 같은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구별로 조사된 카페들의 저가 및 중·고가 카페 입점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구로구와 금천구는 조사 대상 카페 중 각각 61.7%, 55.3%로 저가 카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종로구의 저가 카페 비율은 29.4%에 불과해, 중·고가 카페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4-3. 서울시 자치구별 저가 및 중·고가 카페 비율>



이러한 카페 비율의 차이는 상권 특성이나 임대료 수준, 소비자 특성 등 다양한 영향 요인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별 평균 가격 차이와 카페 분포 비율이 소비자들의 커피 가격 부담과 직결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전체 커피 가격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중심의 가격 정보에서 벗어나 실제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인 카페의 가격까지 포함된 보다 현실적인 커피 소비환경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직장인들의 필수템인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카페 커피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

## 5. 2025년 전국 물가감시 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회장 문미란)는 6월 30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국 소비자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2025 전국 물가감시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지역 간 물가 이슈를 공유하고,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체계적인 물가감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본 협의회 문미란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감시 등 소비자 역할’을, 이총희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물가감시와 재무제표 분석’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사례’를, 허선영 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 △‘2025년 전국 공공요금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강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각 지역의 소비자 물가감시 활동 공유와 전국 물가감시 활동 관련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강

#### ☑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정책 참여 강조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감시 등 소비자 역할’ 특강을 통해 물가상승의 복합적 요인을 설명하며, 물가에 대한 다면적, 심층적 분석의 필요성과 공정거래법 등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입법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확대가 물가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 재무제표 및 정책의 다각도 분석을 통한 소비자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

‘물가감시와 재무제표 분석’을 강의한 이총희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의 가격 인상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활용한 원가 및 비용구조 등 실질적인 부담 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원재료비뿐 아니라 높은 임대료 등 외부 요인이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단체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물가정책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례 발표

#### ☑ “서울시 하수도 요금 인상 사례”를 발표한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노후 하수시설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요금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검토하고,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025년 전국 공공요금 현황”을 발표한 허선영 팀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은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공유하며, 공공요금의 지속적 상승과 지역 간 편차 문제를 짚었다. 특히 요금 인상 시 그 사유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별  
토론**

이어진 조별 토론을 통해서도 각 지역별 물가 이슈를 공유하고, 공공요금 물가감시활동 방법, 정보 공유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2025 전국 물가감시 네트워크』는 지역 현장의 생생한 물가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연계된 물가감시 활동과 소비자단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참고 - 2025년 전국 물가감시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행사사진**

시 간		내 용	발표자/사회자
11:00~11:10	'10	인사 말씀	문미란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10~11:50	'40	특강1.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감시 등 소비자역할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50~13:00	'70	점심식사	-
13:00~13:50	'50	특강2. 물가감시와 재무제표 분석	이총희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50~14:00	'10	휴식 1	
14:00~14:40	'40	사례발표. 서울 하수도 요금 인상 사례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14:40~14:50	'10	휴식 2	
14:50~15:20	'30	조별 토론	
15:20~15:40	'20	조별 토론 발표	
15:40~15:50	'10	마무리 및 폐회	





☑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품목별 가격 변동 현황

품목	용량	품목별 평균 가격		
		2024년 2분기 (원)	2025년 2분기 (원)	등락률
과자(파이)	468g 환산	4,525	4,545	0.4%
과자(스낵)	90g	1,247	1,299	4.1%
껌	원통 90g 환산	4,438	4,467	0.6%
밀가루	1kg 환산	2,068	2,048	-1.0%
설탕	1kg 환산	2,802	2,836	1.2%
고추장	1kg	15,647	16,571	5.9%
된장	1kg	8,148	8,271	1.5%
쌈장	170g 환산	1,557	1,643	5.5%
식용유	1.8L 환산	8,575	8,231	-4.0%
참기름	320ml	9,539	10,061	5.5%
간장	1.7L 환산	14,356	15,204	5.9%
케찹	500g	3,240	3,464	6.9%
마요네즈	500g	5,897	6,194	5.0%
맛김	5g*9봉 환산	4,722	5,467	15.8%
라면	봉지 120g	765	791	3.4%
햄	340g	6,043	6,564	8.6%
즉석밥	210g 환산	1,599	1,580	-1.2%
생수	2L	1,043	1,040	-0.3%
콜라	1.5L 환산	2,907	3,068	5.5%
사이다	1.5L 환산	2,888	3,001	3.9%
소주	360ml	1,484	1,485	0.0%
맥주	캔355ml	1,741	1,831	5.2%
커피믹스	180개입 환산	26,851	30,066	12.0%
분유	800g	22,462	24,739	10.1%
씨리얼	600g	5,996	6,352	5.9%
어묵	300g	2,754	2,718	-1.3%
맛살	300g	2,917	3,047	4.5%
달걀	1판(30개)	7,573	8,200	8.3%
두부	300g 환산	3,705	3,558	-4.0%
우유	1L 환산	3,332	3,354	0.7%
아이스크림	160ml	1,374	1,446	5.2%
냉동만두	1,000g	9,988	10,323	3.4%
두루마리화장지	24롤	25,247	24,683	-2.2%
기저귀	40개입	30,279	29,727	-1.8%
생리대	18개입	6,469	6,589	1.8%
세탁세제	3kg만	9,610	9,632	0.2%
참치캔	100g 환산	2,282	2,272	-0.5%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제품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제품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 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전년 동기 대비 생활필수품 제품별 가격 변동 현황

품목	제조사	제품명	용량	2024년 2분기(원)	2025년 2분기(원)	증감률
과자 (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468g(12개입)	4,525	4,545	0.4%
	롯데제과	몽쉘 카카오 생크림 케이크	408g(12개입)	5,280	5,630	6.6%
과자 (스낵)	농심	새우깡	봉지 90g	1,247	1,299	4.1%
	오리온	포카칩 오리지날	봉지 66g	1,513	1,541	1.8%
껌	롯데제과	자일리톨 오리지날(껌)	원통90g	4,438	4,467	0.6%
밀가루	CJ제일제당	백설 밀가루 중력분(다목적용)	1kg	2,105	2,073	-1.5%
	대한제분	곰표 밀가루 중력분(다목적용)	1kg	2,032	2,022	-0.5%
설탕	CJ제일제당	백설 하얀설탕	1kg	2,802	2,836	1.2%
	CJ제일제당	백설자일로스하얀설탕	1kg	5,089	5,126	0.7%
고추장	CJ제일제당	해찬들 100%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	사각 1kg	14,513	15,958	10.0%
	대상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사각 1kg	16,781	17,183	2.4%
된장	CJ제일제당	해찬들 맛있는 재래식 된장	사각 1kg	8,173	8,398	2.8%
	대상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사각 1kg	8,124	8,144	0.3%
쌈장	CJ제일제당	해찬들 사계절 쌈장	170g	1,580	1,738	9.9%
	대상	청정원 순창 양념듬뿍 쌈장	200g	1,804	1,822	1.0%
식용유	CJ제일제당	백설 콩100%로 국내에서 만든 콩기름	1.8L	7,977	7,828	-1.9%
	사조해표	식용유 콩기름	1.8L	8,398	7,801	-7.1%
	오뚜기	콩100% 식용유	1.8L	9,350	9,065	-3.1%
참기름	CJ제일제당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	320ml	8,175	8,362	2.3%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	320ml	10,903	11,760	7.9%
간장	샘표식품	양조간장 501	1.7L	14,478	15,408	6.4%
	샘표식품	진간장 금F3	860ml	7,200	7,589	5.4%
케찹	오뚜기	토마토 케찹	500g	3,240	3,464	6.9%
마요네즈	오뚜기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	500g	5,897	6,194	5.0%
맛김	동원F&B	양반 좋은 원초에 그득하고 향긋한 들기름 김&올리브김	5g*9봉	4,571	5,156	12.8%
	풀무원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	5g*9봉	4,873	5,777	18.5%
라면	농심	신라면	5개 묶음	4,069	4,310	5.9%
	삼양식품	삼양라면	5개 묶음	3,921	3,888	-0.9%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5개 묶음	3,482	3,665	5.2%
햄	CJ제일제당	스팸 클래식	340g	6,043	6,564	8.6%
	롯데푸드	롯데 신선톡톡 슬라이스햄	100g	3,541	3,635	2.7%
즉석밥	CJ제일제당	햇반	210g 환산	1,742	1,745	0.2%
	오뚜기	오뚜기밥 흰밥	210g 환산	1,455	1,415	-2.8%



품목	제조회사	제품명	용량	2024년 2분기(원)	2025년 2분기(원)	등락률
생수	광동제약	제주 삼다수	2L	1,235	1,237	0.2%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8.0	2L	851	842	-1.0%
오렌지 주스	코카콜라	미닛메이드 시그니처 오렌지	1.5L	-	4,371	-
	롯데칠성음료	델몬트 오렌지	1.5L	4,119	4,365	6.0%
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페트1.5L	3,330	3,444	3.4%
	롯데칠성음료	펩시콜라	페트1.5L	2,484	2,692	8.4%
사이다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	페트1.5L	2,888	3,001	3.9%
소주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360ml	1,487	1,483	-0.3%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360ml	1,481	1,486	0.3%
맥주	오비맥주	Cass 후레쉬	캔355ml	1,742	1,869	7.3%
	하이트진로	Hite	캔355ml	1,740	1,792	3.0%
커피믹스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믹스	180개입	27,966	31,222	11.6%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80개입	25,737	28,909	12.3%
분유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XO 3단계	캔800g	22,462	24,739	10.1%
	남양유업	아이엠마더 3단계	캔800g	30,685	34,706	13.1%
시리얼	농심	스페셜K	480g	8,940	8,180	-8.5%
	농심	콘푸로스트	600g	6,184	6,321	2.2%
	동서식품	포스트 콘푸라이트	600g	5,807	6,382	9.9%
어묵	CJ씨푸드	삼호 부산어묵 골드	300g	2,732	2,762	1.1%
	사조대림	대림선 부산어묵(마당놀이)	300g	2,775	2,674	-3.6%
맛살	사조대림	게맛살 큰잔치	300g	2,917	3,047	4.5%
달걀	-	대란	1판(30개)	7,573	8,200	8.3%
두부	풀무원	특등급 국산콩 두부 부침용	300g	4,228	3,800	-10.1%
	CJ제일제당	행복한콩 국산콩 100% 두부 부침용	300g	3,182	3,316	4.2%
	CJ제일제당	행복한콩 단단한 부침 두부	300g	1,484	1,482	-0.1%
우유	서울우유	서울우유	종이팩 1L	3,140	3,157	0.5%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	종이팩 1L 환산	3,431	3,446	0.4%
	매일유업	매일우유 오리지널	종이팩 1L 환산	3,424	3,459	1.0%
아이스크림	빙그레	투게더 바닐라맛	900ml	6,760	6,980	3.3%
	롯데제과	월드콘XQ	160ml	1,300	1,425	9.6%
	빙그레	메로나	80ml 환산	724	733	1.3%



품목	제조회사	제품명	용량	2024년 2분기(원)	2025년 2분기(원)	등락률
냉동만두	CJ제일제당	비비교 왕교자	1,000g	10,119	10,758	6.3%
	해태제과	얇은피 고향만두	1,000g	9,895	10,234	3.4%
	동원F&B	개성왕만두	1,000g	9,951	9,977	0.3%
두루마리 화장지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데코&소프트 3겹	35m*24롤	28,866	28,012	-3.0%
	깨끗한 나라	깨끗한나라 화장지 순수프리미엄 3겹	35m*24롤	21,628	21,353	-1.3%
기저귀	유한킴벌리	하기스 매직팬티 컴포트 기저귀 4단계 (남아용 또는 여아용)	40개입	30,279	29,727	-1.8%
생리대	유한킴벌리	화이트 수퍼흡수 중형	18개입	6,887	7,075	2.7%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오리지널 울트라슬림 날개중형	18개입	6,968	7,055	1.2%
	LG유니참	소피 바디피트 볼록 맞춤 울트라 중형	18개입	5,553	5,636	1.5%
세탁세제	애경산업	스파크 리필	3kg	7,369	7,577	2.8%
	CJ라이온	비트 리필	3kg	9,480	9,624	1.5%
	LG생활건강	테크 리필	3kg	11,982	11,695	-2.4%
	헨켈홈케어코리아	퍼실파워젤(액체,드럼.일반경용)	2.7L	24,808	25,801	4.0%
샴푸	아모레퍼시픽	려 함빛	550ML 환산	-	14,048	-
	LG생활건강	케라시스 러블리 데이치 퍼폼샴푸	600ML	7,924	7,253	-8.5%
	애경산업	엘라스틴 콜라겐 볼륨 탄력케어 10X 샴푸	680ML	8,218	9,056	10.2%
참치	동원F&B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100g	2,417	2,410	-0.3%
	동원F&B	사조 참치 살코기 안심따개	100g	2,148	2,134	-0.6%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제품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품목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2025년 1분기 대비 2025년 2분기 생활필수품 품목별 가격변동 현황

품목	용량	품목별 평균 가격		
		2025년 1분기(원)	2025년 2분기(원)	등락률
과자(파이)	468g 환산	4,519	4,545	0.6%
과자(스낵)	90g	1,252	1,299	3.7%
껌	원통 90g 환산	4,483	4,467	-0.4%
밀가루	1kg 환산	2,033	2,048	0.7%
설탕	1kg 환산	2,837	2,836	0.0%
고추장	1kg	16,029	16,571	3.4%
된장	1kg	8,231	8,271	0.5%
쌈장	170g 환산	1,656	1,643	-0.8%
식용유	1.8L 환산	8,179	8,231	0.6%
참기름	320ml	9,962	10,061	1.0%
간장	1.7L 환산	15,009	15,204	1.3%
케찹	500g	3,455	3,464	0.2%
마요네즈	500g	6,061	6,194	2.2%
맛김	5g*9봉 환산	5,452	5,467	0.3%
라면	봉지 120g	768	791	2.9%
햄	340g	6,217	6,564	5.6%
즉석밥	210g 환산	1,582	1,580	-0.1%
생수	2L	1,032	1,040	0.7%
콜라	1.5L 환산	3,064	3,068	0.1%
사이다	1.5L 환산	2,985	3,001	0.5%
소주	360ml	1,483	1,485	0.1%
맥주	캔355ml	1,752	1,831	4.5%
커피믹스	180개입 환산	29,283	30,066	2.7%
분유	800g	24,554	24,739	0.8%
씨리얼	600g	6,216	6,352	2.2%
어묵	300g	2,719	2,718	0.0%
맛살	300g	2,837	3,047	7.4%
달걀	1판(30개)	7,568	8,200	8.4%
두부	300g 환산	3,622	3,558	-1.8%
우유	1L	3,360	3,354	-0.2%
아이스크림	160ml	1,419	1,446	1.9%
냉동만두	1,000g	10,028	10,323	2.9%
두루마리화장지	24롤	24,456	24,683	0.9%
기저귀	40개입	28,970	29,727	2.6%
생리대	18개입	6,548	6,589	0.6%
세탁세제	3kg만	9,472	9,632	1.7%
샴푸	500ml	8,513	8,492	-0.2%
참치 캔	100g 환산	2,305	2,272	-1.4%

\* 판매규격이 다양한 일부 제품의 경우, 기준단위로 환산함.

\*\* 일부 제품의 경우 조사제품 변경(단종, 리뉴얼, 조사 용량 변경, 판매경로 변경 등)으로 인해 등락률 고시하지 않음.



☑ 2024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구분	24년 2분기				25년 2분기				증감률
	4월	5월	6월	평균	4월	5월	6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114.01	114.10	113.84	113.98	116.38	116.27	116.31	116.32	2.05%

출처: 통계청